

서남권 뭉쳐 전남 관광지도 바꾼다

목포·신안·무안 주축 관광협의체 발족
천사대교·해상케이블카 개통 계기
2000만명 관광객 유치 목표 마케팅

신안 천사대교와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가 생겨나면서 서남권 관광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목포·신안·무안이 주축이던 서남권 관광협의체가 발족해 관광과 교통 분야의 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권 관광협의체는 목포·신안·무안 간 연계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2000만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목포시와 신안군이 천사대교와 해상케이블카를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난달 29일 '목포·신안군 관광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양 시·군이 협력의 첫 발을 내딛은 것으로 요트관광 공동 운영과 박물관·미술관 교류, 관광지 입장료 공동 할인, 대중교통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서남권 관광마케팅을 위해 5일 주요 여행사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목포·신안·무안 공동 관광설명회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와 인접 섬 간 여객선 야간운항과 해상케이블카와 함께 고티도, 유달산을 연계한 관광 루트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테마별 공동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연계 관광 안내 책자, 관광 안내판 설치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목포시 관광과에 따르면 서남권 관광협의체를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테마별 공동 관광 상품은 크게 3가지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지난달 29일 천사대교와 해상케이블카를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목포·신안군 관광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목포시 제공>

섬을 테마로 신안군 암태도(자은도)에서 천사대교를 통과한 후 목포 해상케이블카 탑승과 함께 고하도를 경유하는 '섬&섬 여행' 상품이다.

또 '스릴'을 테마로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신안 세일 요트 체험을 연계시킨 'SKY&SEA 투어'와 문화·역사를 테마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일명 순해원 거리)과 연계한 '역사 탐방 투어' 상품도 준비돼 있다.

이들 3가지 테마상품을 무안국제공항을 활용한 항공상품은 물론 내일로(KTX 등 철도여행)와 바다로(섬 여행) 등 기존 관광 상품들과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게 협의체의 구상이다.

특히 3개 지자체는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선 외부 관광객들이 찾기 쉽고 편리한 교통여건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안군은 암태에서 광주와 서울을 오가는 고속버스를 운행(광주 6회, 서울 2회)할 계획이며, 무안군은 운남대교를 거쳐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목포시도 무안공항 시외버스 운행 횟수를 12회로 늘린 데 이어 무안국제공항을 오가는 시내버스(1000번) 노선을 신설했다.

또 자은면과 안좌면을 각각 출발해 천사대교와 압해대교를 거쳐 목포버스터미널과 목포역을 오가는 2개 버스노선에 신안군 공영버스가 운행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을 비롯해 목포시와 무안군 3개 시군이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서남권을 찾는 관광객이 섬과 도시를 만끽하는 색다른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목포 하당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여가 활용 공간인 하당청소년문화센터가 지난달 29일 문을 열었다. 앞으로 센터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행복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

꿈과 끼를 펼치세요...하당청소년문화센터 개소

목포 하당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여가 활용 공간인 하당청소년문화센터가 지난달 29일 문을 열었다.

이 센터는 사업비 총 24억6400만원이 투입돼 연면적 1267㎡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과 소통 공간이 자리하고, 2층은 청소년 상담 및 각종 프로그램 공간, 3층에는 청소년 문화 및 예술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 곳에서 토론 동아리, 진로 동아리(3개), 댄스·밴드·영상·스포츠 동아리, 풋살 동아리 등 모두 10개 청소년동아리 630명이 꿈과 끼를 펼치게 된다.

정지숙 목포시 여성가족과장은 "하당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뿐만이 아닌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해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하는 '행복플랫폼'으로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테크로드·표지석 등 유달산 명품 관광지 조성 순조

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맞춰 추진 중인 '유달산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유달산 승강장-일등바위 구간 탐방로 조성(사업비 13억8000만원)과 유달산 공원 남도명품 관광지 조성(11억6500만원) 등 크게 두 갈래로 추진된다.

총 631m를 3개 구간으로 나눠 테크로드를 설치하는 탐방로 조성 사업은 1단계(관운각-마당바위)와 2단계(마당바위-일등바위) 구간은 공사가 완료됐고, 현재 3단계인 '둘레길-상부승강장-관운각(206m)에 이르는 구간은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맞춰 추진 중인 '유달산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말 일등바위 정상에 표지석이 설치됐다. <목포시 제공>

테크로드와 함께 전망쉼터 3개소가 조성되고 지난달 말 일등바위 정상에 120cm 크기의 표지석이 설치됐다.

또 유달산 일원에 산재된 각종 시설을 개선하는 유달산 공원 명품 관광지 조성사업도 순조롭다.

자생식물원 관람로와 차량시설 개선 공사를 비롯해 조각공원의 외국작품 7점에 대한 녹제거와 도색, 조각공원 경계 펜스 철거 작업 등은 완료됐다.

노후화된 노적봉 화장실을 철거하고 2억3000만원을 들여 현대식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은 현재 실시 단계에 있다. 달성공원 주차장 등 3곳의 주차장 정비 사업도 이달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유케한' 봄나들이, 유달산으로 초대합니다

6~20일 봄축제...보물찾기 등 다채

2019 목포 유달산 봄 축제가 6일부터 20일까지 매 주말마다 5일 동안 유달산과 원도심 일원에서 '유(달산) 케(이블카)한! 봄나들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봄의 정취를 만끽하면서 목포의 역사와 매력을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봄나들이 행사에 초점이 맞춰진다.

축제는 6일 정명여중·고 학생들의 4·8만세운동 재현극을 시작으로 노적봉 주 무대의 개막축하 공연과 함께 유달산의 봄을 온 몸으로 느껴보는 유달산 꽃길 걷기 등으로 이어진다.

이번 축제에서는 유달산 둘레길에서 보물찾기와 근대역사거리 스탬프 챌리가 대표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노적봉 예술공원 야외무대에서는 꽃바람 노래대

회, 청소년 봄날음악회, 유계상계 콘서트 등 여흥과 끼가 넘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유달산 둘레길에서 보물찾기는 6.3km에 달하는 둘레길 코스에서 조각공원, 소요정, 관운각, 유선각 등을 걷는 행사로 유달산 곳곳에 남아있는 근대역사의 숨결을 느끼며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달 예술타운과 달성공원에서는 연인,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숲속의 낭만피아노', 하늘정원 작은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과 푸드트럭을 배치해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상춘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젊은 층에는 재미와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첫사랑 춘심을 찾아라!'라는 체험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유채꽃과 영산강 황포돛배의 향연!
600년 전통 흥어의 거리 나주영산포로 오세요!

제15회 영산포
흥어축제

2019.4.12.금 - 4.14.일
영산포 둔치체육공원 일원

Yeongsampo Skate
Festival 2019

주최·주관 | 영산포흥어축제추진위원회